

제52회 강화군민의 날 기념

제78회 강화군 체육대회, 화합 한마당 4년만에 개최



강화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강화군민의 날 기념 입장식



강화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종합시상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2회 강화군민의날 기념 제78회 강화군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1일 강화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강화군 체육대회는 그 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만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과 13개 읍·면 선수단 등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경기종목으로는 줄다리기, 협동줄넘기, 어르신공굴리기, 한궁, 피구, 족구, 게이트볼, 400m 계주, 에어봉달리기, 신발양궁 총 10개의

종목이 실시되어 다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입장식에서는 각 읍·면별 선수단의 특색과 상징물을 주제로 대규모 퍼레이드를 펼쳐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종결과는 교동면이 2019년에 이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2위는 강화읍, 3위는 길상면, 입장상에는 송해면(1등), 화도면(2등), 양사면(3등)이 차지했다.

유천호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함께 즐기며 화합과 단결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라면서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 최벽하 기자

오는 25일, 전체 사육농가 백신접종 완료 예정 강화군, 림프스킨병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림프스킨병 대책회의

강화군은 23일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결과 24일 3개면 3농가에서 림프스킨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63두를 살처분할 계획이며, 25일까지 관내 전체 소 사육 농가 전 두수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소 사육농장 및 업체에 대하여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강화군과 축협공동방제단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농장, 도로 하천주변 등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질병 대응 및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장 청소, 세척,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축산농가 림프스킨병 확산에 따라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상반기 안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논의 강화군,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강화군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용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또한,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정기회의에서는 ▲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 규제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희부

지 활용’,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 최벽하기자

5,106필지 결정,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강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106필지로, 공공사업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토지들이 대부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23년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대비 집중 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업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군은 11월 17일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계도기간이 11월 23일부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과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감량화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는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군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강화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통해 안전의식 고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8일 강화읍 합일초등학교에서 승강기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2023년 강화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강화군, 강화소방서, 합일초등학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강기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사고대응 안전교육 및 체험훈련과 모의 승강기 간힘 사고 구조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승강기 사고대응 안전교육 및 체험훈련은전문 강사의 시청각 교육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승강기를 통한 올바른 이용 방법 교육, 승강기 사고 사례 영상 활용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승강기 내 승객이 갇히는 상황을 가정한 승강기 간힘 사고 실전 모의 구조 훈련도 진행하며, 단계별 대응 조치 방법을 시연하여 초기 대응능력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훈련을 마친 후 군 관계자는 강평을 통해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고대응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군에서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 최백하기자

강화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12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 및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화군 24개 부서 및 1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담긴 차년도 군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강화섬쌀 미질·상품성 향상 정립 추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진행



강화군의회 강화섬쌀 연구회 중간보고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 의원연구단체인 ‘강화섬쌀 미질·상품성 향상 정립 추진 연구회(대표자 의원 배충원)’가 지난 16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섬쌀 미질의 상품성 향상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화섬쌀 연구회 소속 박승한, 배충원, 최중찬, 한승희, 고복숙 의원과 강화군 3개 농협조합장 및 쌀 작목연합회, 농촌지도자 연합회, 석모도 친환경쌀 작목회 등 강화섬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간 보고회에 앞서서는 나들미와 수원657 신품종의 시식 행사가 열려 기존 품종미와 신품종 간의 밥맛 평가를 진행했다. 시식 평가 후 유천호 강화군수는 “20분 이상의 쌀 불림 시간을 단축해 짧은층도 손쉽게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신품종 쌀의 개량화를 진행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벼종자(나들미)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 및 소비 시장 접목 방안 전반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화섬쌀 관련 통계 자료 분석과 면담, AHP설문조사(쌀 생산자 조직, 생산자단체, 읍면 이장단, 강화군 관내 및 관외 소비자), 우수사례 등을 보고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 농업농촌정책 담당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강화섬쌀의 발전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승한 의장은 “현재는 강화섬쌀이 품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강화군 대표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회 대표자인 배충원 의원은 “나들미의 새로운 브랜드쌀을 강화군 대표쌀로 개발하고 상표등록 함으로써 고가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관기관별 정책 조율과 현장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강화섬 브랜드쌀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 제4장학관 첫 입사생 모집

인천 연수구 위치...오는 10월 19일부터 입사생 58명 모집



제4장학관 입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강화군 제4장학관의 입사생 58명을 10월 19일부터 모집한다.

입사 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원) 입사생과 재학생으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강화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집은 수용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수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강화군청 자치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hedu@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추첨 절차 없이 선발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강화군 제4장학관은 인천 연수구(용담로85번길 28)에 위치하며, 연면적 3,887㎡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로 총 58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제1장학관과 서울시 중구 소재 제2장학관, 지난 9월 개관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제3장학관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인재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장학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하는 시간 마련

강화군, 「주문연도교 및 아차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섬 시설말기 컨설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7일, 서도면사무소에서 「주문연도교 및 아차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로 노선 및 교량 형식(안)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은 작년 6월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일상 감사(郡),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및 계약심사(市)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총사업비 300억 원(시비 50%, 군비 50%)이

투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측량·지반조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및 군사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아차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은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 35억 원(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이 소요된 국비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문연도교 건설공사 시점부인 아차도 내 약 1.0km에 대한 도로 확장 및 신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주문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은 살곶이 선착장에서 주문연도교 종점까지 약 4.2km 구간으로, 1구간(살곶이 선착장에서 1.4km 구간)은 올해 9월 말 공사를 준공했으며, 2구간(주문저수지까지 1.0km 구간)은 내년 3월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3구간(주문연도교 종점까지 약 1.8km 구간)은 올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과 서도면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서도면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천호 강화군수 부부, 리스펙트 도우너 모임 가입



리스펙트 도우너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에서 운영 중인 리스펙트 도우너 모임에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인현 여사가 제1호, 제2호로 가입해 최초의 부부 도우너가 됐다.

리스펙트 도우너는 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과 선한 영향력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5백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와 이인현 여사는 “재단이 올해 첫 출범 했지만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강화군이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하며, 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윤근 이사장은 “뜻깊은 일에 앞장서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가입하신 회원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화군복지재단의 기부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 중이며, 기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032-933-103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강화경찰서,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 위한 행복 동행 순찰 실시



공동체 협력 치안 “행복 동행 순찰” 실시



공동체 협력 치안 “행복 동행 순찰” 실시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31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외국인치안봉사단, 범죄예방협의회,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등 약 1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치안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행복동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은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 및 이전 합동순찰 실시 후 범죄취약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를 통해 순찰 노선을 4개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 협력단체를 지정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순찰활동이 이뤄졌다

“행복 동행 순찰”은 공동체 협력 치안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하는 강화서 자체 추진 시책으로, 주민은 지역치안에 적극 참여하고 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구현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강화경찰서는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율방범대, 시민경찰과 함께 관내 다중밀집지 인적취약요소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강화군청에 CCTV추가 설치(24개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이번 합동 순찰은 경찰과 주민이 관내 범죄취약지를 공유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동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민·강화군청 임직원 대상 수업료 감면 및 입학금 면제 혜택



사이버대학 업무 협약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7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 교육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1년 3월 개교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11년부터 ‘고등교

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총 1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교 과정에 대해 강화군민의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강화군민은 매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강화군청 임직원은 매 학기 수업료의 50%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자연숲치유산업학과 등도 올해 신규 개설되어 강화군민과 강화군청 임직원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강화군민과 강화군청 임직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 교육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 영농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강화섬자두 영농현장 컨설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강화섬자두 재배 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의 협력으로 분야별 전문기술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자두의 수정 불량 및 검은점무늬병 등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후 추진해 농가의 호응이 더욱 컸다.

또한, 자두 핵심 재배 기술과 병해충, 토양관리, 농약 안전 사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장교육과 함께 전문기술위원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교육도 병행 추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을 통해 강화섬자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군 주요 작목별 맞춤형 기술교육도 단계별로 추진해 전국 최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노인복지관, ‘즐거로운 노후를 위한 공개 법률 특강’ 개최



노인복지관 공개법률특강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이 지난 25일 법률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공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강화군청 법률 상담터 김주현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는 유언의 성립과 효력, 상속과 증여, 유류분 제도 등 노년에 알아

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홍보하며 생활에 당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공개 특강에 참여한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궁금했던 상속 문제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강의에 만족을 표했다.

이에 윤심 관장은 “특강을 비롯해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구조법인 연계 등을 통해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입장문

중앙시장내 ‘중앙마트’출입구 불법설치 관련

중앙마트의 불법행위, 원상회복이 원칙 / 일부 세력의 사실왜곡과 선동,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문 발표

최근 중앙시장내 ‘중앙마트’관련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강화군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마트의 기존 출입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면서 비롯되었다.

첫째, 신규 출입구를 내면서 사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의 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 신규 출입구는 강화군 균유지 일부를 불법점유까지 했다.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강화군은 이를 인지하고, 법에 의거해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중앙마트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뒤늦게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이도 불가하다.

따라서, 이번 중앙마트 신규 출입구 공사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중앙마트가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한 것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중앙마트가 져야한다.

하지만, 중앙마트는 공사 중에 실수로 균유지 일부를 점유한 것인데 균에서 과잉대응한다며 오히려 강화군 탓을 하고 있다. 또한, 모

지역언론과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사건의 원인이 된 중앙마트의 불법행위는 도외시한 채, “강화군이 한평도 안되는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를 한다”며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공사 자체가 불법행위로 단순 실수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가 되고,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화군이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강화군의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한평이든 백평이든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중앙마트의 불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존 출입구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다. 대법원은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 동안 중앙마트는 그 출입구를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자 어쩔 수 없이 기존 출입구를 원상회복하고, 이번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반복된 불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중앙마트 사안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우선 시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 지정 서도중앙교회 선교130주년·한옥예배당 100주년 기념예배



문화재자료 제14호 서도중앙교회



문화재자료 제14호 서도중앙교회

강화 서도중앙교회(江華 西島中央教會)는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교회이다.

강화도는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서양에 문호를 개방할 때 그 전진적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 따라서 서양인들의 선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이들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거나 그들의 영향에 의해 당시에 세워진 교회 중 지금까지 강화도에 남아있는 것만 3곳에 이른다.

1900년에 세운 성공회 강화성당, 1906년에 세워진 강화 온수리 성공회교회 그리고 서도중앙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이다.

그 중 서도중앙교회는 1923년 2월 교인들의 건축헌금으로 지어지기 시작해 같은 해 7월에 한옥예배당으로 완공되었으며, 1978년 주문교회에서 서도중앙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2년 감리교 전도사 윤정일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주문도리에 들어와서 1905년에는 교회와 신도가 마음을 모아 영생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1923년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를 새로 지었다.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이며, 흙처마집이다. 건물 안은 중세 전기의 서양교회 양식을 하고 있으나 매우 단순하여, 예배실로 쓰이는 좁은 身廊(신랑)과 側廊(측랑), 중앙의 강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 목조건물의 가구형식을 바탕으로 서양교회를 지었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23년 10월 28일 선교 130주년 및 한옥예배당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뜻깊게 마칠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애환이 담긴 실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예배당이 유린되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시절 여신도들은 감시와 훼방을 뚫고 새벽기도와 산골짜기 비밀 집회로 믿음과 교회를 지켜내었다고 한다.



감사예배에 특별출연하신 할머니 권사님들

기념일인 이 날, 한옥예배당 역사의 산증인이신 할머니 권사님들을 뵈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기어오르러 오신다고 한다. 노환으로 제대로 서시지도 못하기에 특송을 할 수 없어 행사내용에서는 일부러 제외 해드렸는데 기어이, 보행기와 지팡이에 의지하며 특별 출연으로 나오시게 되었고, 덕분에 특송은 내·외빈들의 우렁찬 박수와 눈가를 붉게 할 정도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먼길 찾아 와 주었다고 식사도 다 대접하고 드신다며 맨 나중에 식사하러 들어오셨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강한 자태에 더 넓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無에서 有을 발굴하여 서도중앙교회 역사를 무료로 집필하신 이덕주교수님, 책을 제작하여 기증을 해주신 박상경장로님께 할머니 권사님들은 선물도 전달하는 훈훈한 마음을 남겼다. - 서정진 기자

배 시간표 _ (동절기 11월 1일 기준)

들어오는 배 7:50 10:30 15:20
(선수출항)

나가는 배 8:45 13:00 16:15
(주문(살곶이)출항) (13:00 운행은 불음도 경유: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하여 배시간 불규칙)

- * 인터넷 예약은 당일엔 불가능 * 필수지참 : 신분증.
- * 선수항/주문항(살곶이)에 출발 30분전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 * 문의 ▶ **삼보해운 ☎ 032-932-6007**

기고

이경수

심주, 심도, 강화, 갑곶, 월곶



월곶돈대

조선시대에 규모가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는 현입니다. 현 위에 군, 도호부, 주 등이 있었습니다. 주(州)의 역사는 꽤 길어요. 통일신라 '9주 5소경'의 9주가 많이 알려졌지요. 이후 전국적으로 '-주'라는 지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도 지방 큰 도시 지명에 '주'가 붙은 곳이 여럿입니다.

조선 태종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주의 수를 크게 줄이는 방법으로 주의 격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줄였을까요? 지명을 '-주' 대신 '-산'이나 '-천'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울주가 울산이 되고 포주가 포천이 되었습니다. 괴주가 괴산이 되고 인주가 인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를 '-목'으로 불렀습니다. 나주목, 전주목... 그래서 주의 수령을 목사(정3품)라고 했습니다.

조선 8도의 명칭은 대개 그 지방 큰 도시의 지명을 합한 것입니다. 충청도는 충주+청주, 전라도는 전주+나주, 경상도는 경주+상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현의 수령은 현감일까요, 현령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작은 현의 수령은 현감(종6품), 좀 큰 현은 현령(종5품)입니다. 군은 군수(종4품), 도호부는 도호부사(종3품)입니다. 도호부사를 줄여서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강화가 강화유수부가 되기 전에는 도호부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수령을 강화부사라고 했습니다.

《경국대전》(1485)에 따르면, 당시 조선 지방관 정원이 329명이었습니다. 현감 141명, 현령 34명, 군수 82명, 도호부사 44명, 목사 2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도호부사 4명과 부윤 4명이 더해져 329명입니다.

현감, 현령, 군수, 부사, 이런 지방관들을 원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또라고도 했고요. 지방관을 통틀어 원(員)이라고 했는데 원님은 '원'을 높여 부른 말입니다. 임금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사도(使道)라고도 했는데, 사도를 사또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위수여는 심주 강화현 사람(韋壽餘, 沁州江華縣人)으로 행동이 단아하고 성실했으며 법도를 잘 지켰다.”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수여라는 이가 심주의 강화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화의 다른 이름이 심주(沁州)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수여가 1012년(현종)에 사망했으니까, 고려 초에 이미 심주가 강화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심(沁) 자의 뜻은 '스며들다, 배어들다'입니다. 왜 강화를 심주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심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심주의 강화현이라고 했으니, 강화에 다른 현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당시 심주에 강화현의 영현(領縣, 거느린 현)으로 하음현(河陰縣), 교동현(喬桐縣), 진강현(鎭江縣)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이지만, 강화현에만 수령이 파견됩니다. 하음현·교동현·진강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강화현 수령이 나머지 3현을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음현은 지금 하점, 교동현은 교동, 진강현은 양도 지역과 비슷할 겁니다.

1232년(고종 19)에 고려 조정이 강화로 천도합니다. 몽골 침략에 맞서려는 겁니다. 이제 고려의 도읍지가 개성에서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고려의 새로운 수도 강화를, '강화 도읍'이라는 의미의 강도(江都)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개성으로 환도한 뒤에도, 이후 조선시대에도 강화는 계속 강도로 불렸습니다.

강화가 강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심주는 심도(沁都)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강화', '강도'만큼이나 '심도'라는 지명이 많이 쓰였습니다. 화남 고재형 선생의 강화 기행집 제목도 《심도기행(沁都紀行)》(1906)입니다.

특히 '심(沁)'이라는 글자는 강화를 가리키는 상징어였습니다.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심(沁)'은 대개 강화를 의미합니다. 심영(沁營)은 강화 진무영이요, 심유(沁留)는 강화유수입니다.

“지금 청대하고 있는 것은 심의 일(沁事) 때문인 듯한데, 이것이야말로 어찌 최근 들어 망령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정조실록》에 실린 정조의 말입니다. 심의 일, 심사(沁事)는 '강화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가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한양(漢陽)의 '한'이 서울만을 상징할 수 없으며, 인천(仁川)의 '인'이 인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주(沁州)의 '심'은 강화만을 가리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강화에서 '심(沁)'은, 그리고 '심도(沁都)'는 거의 죽은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도중학교, 심도파출소(심도지구대) 정도입니다. 굴뚝만 남고 역사가 되어버린 심도직물도 있네요.

자, 이제 심주의 한자 표기를 다시 봅시다. 沁州!

어딘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길 '주(州)'는 지방 큰 도시 지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물론 고려시대에도 그



상주산에서 바라 본 삼산면 들판



강화읍 월곶리, 김포시 월곶면

했습니다. 강화 천도 이전까지 강화의 행정구역 명칭은 ‘현’이었습니다. 천도 이후에야 군(郡)으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강화‘현’과 심‘주’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사료에서 강화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쓴 심주(沁洲)가 보입니다. 한자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州’가 아니라 州+洲=‘洲’입니다. 이 주(洲)자는 섬(島)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웬지 ‘州’보다 ‘洲’가 강화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처음에는 강화를 沁洲라고 했을 것인데 이후 沁州로 쓰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심주의 한자 표기는 당연히 沁州라고 여기게 된 것은 아닐까? 저는 ‘沁洲’라는 강화 옛 지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음현이 하점면이 되고, 진강현이 양도면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현재 강화군에는 1읍 12면이 있습니다.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에도 지금 이름으로 부르던 지역은 선원면(仙源面), 불은면(佛恩面), 길상면(吉祥面), 내가면(內可面)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요, 대략 조선시대 부내면(府內面)이 장령면(長嶺面)과 합해서 지금의 강화읍(江華邑)이 되었습니다. 양도면(良道面)은 상도면(上道面)과 위량면(位良面)이 합해진 것입니다. 위량의 ‘양’과 상도의 ‘도’를 따서 ‘양도’로 이름 지은 것이죠.

하음면(河陰面), 간점면(艮岾面), 외가면(外可面)은 하점면(河岾面)이 되었습니다. 송정면(松亭面)과 삼해면(三海面)을 합친 것이 송해면(松海面)입니다. 북사면(北寺面)과 서사면(西寺面)을 합하면? 그렇지요, 양사면(兩寺面)입니다.

교동은, 조금 복잡하네요. 조선시대 교동은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상주산이 있는 송가도(松家島)도 교동 소속이었습니다. 간척으로 송가도가 석모도와 합쳐졌어도 여전히 송가도는 교동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서 송가도 지역이 삼산면으로 이관됩니다. 한편 동면과 남면이 화개면(華蓋面)이 되고 북면과 서면이 수정면(水晶面)이 됐다가 이후 화개면과 수정면을 합쳐 교동면(喬桐面)이 되었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석모도 지역이 삼산면(三山面)이 됩니다. 산이 셋

이라서 삼산이라고 했다는데요, 그 세 산은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입니다. 주문도, 불음도 등은 한때 제도면(諸島面)으로 불리다가 서도면(西島面)이 되었습니다.

부내면과 장령면이 지금 강화읍 지역이라고 했지요. 부내면은 읍내이고요, 장령면은 옥림리, 용정리, 갑곶리(甲串里), 월곶리(月串里)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또 한자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甲串’, ‘月串’. 한글로 갑곶, 월곶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상 공식 지명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갑곶리’입니다. 월곶리를 월곶리로, 갑곶리를 갑곶리로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김포는 제대로 월곶면(月串面)으로 씁니다.

바로 잡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갑곶리를 갑곶리로, 월곶리를 월곶리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 쓰는 시대에 지번 주소를 굳이 고쳐야 할까?

예, 정말 요즘은 ‘〇〇리 〇〇번지’ 식의 지번 주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고요, 특히 일정 구역을 말할 때는 지번 주소가 절대적으로 편합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누굴 만나서 묻는다고 가정합니다. 상대방이 대답해요. “길상면 보리고개로에 삽니다.” 보리고개로? 거기 어딘데? 그런데 상대가 “길상면 선두리에 살아요.” 그러면, 아, 선두리, 금방 알잖아요.

문화유산의 이름과 해당 설명 등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번 주소가 사용 됩니다. 우리 사례를 보지요.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월곶돈대!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갑곶돈대! 역시나, 어색합니다. 갑곶돈대 안에 천연기념물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이 탱자나무의 정식 이름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라고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1



심도직물 굴뚝(옹흥궁공원)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칼럼

나폴레옹, 칭기즈칸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프랑스는 재작년 나폴레옹 사망 200주기를 맞아 유난을 떨었다. 파리 앙발레드 군사박물관에 있는 나폴레옹 무덤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참배했다. 특히 나폴레옹재단은 2021년을 '나폴레옹의 해'로 명명하고, 그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유물과 사료 등을 나라 곳곳에 전시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다시 보기'가 시작된 것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폴레옹은 영웅의 대명사다.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소재로 쓰였으며 심지어 화폐와 술병 이름에도 등장한다. 프랑스를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폴레옹의 이름과 말을 탄 그의 화상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는 진정한 영웅인가. 유럽 역사를 꿰뚫어 보면 그는 '모순의 영웅'이다. 영웅성 이면에는 매우 파괴적인 면모가 있다.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왕국의 변두리였던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그는 179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공화국을 없애고 황제에 올라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혁명(1789년)을 퇴보시켰다. 또 검열제도를 확대해 비판 여론을 단속하는가 하면 관변 언론을 동원해 철혈 통치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에 실망한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가장 큰 죄악은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무모하게 러시아 원정을 감행해 그의 군대 61만명 중 40만명이 죽고 10만명이 포로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유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기에 그의 사망 이후 유럽의 외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물이 다시 유럽을 집어삼키는 걸 막는가"를 기준으로 진행될 정도로 모든 유럽 국가들이 포스트 나폴레옹의 출현을 경계했다. 이런 배경으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나폴레옹의 재림으로 여겨졌으며, 히틀러는 파리를 함락시킨 뒤 나폴레옹 묘를 참배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표 영웅'인 몽골의 칭기즈칸(1162~1227) 역시 침략을 빼면 인생에서 남는 게 없다. 국경을 맞댄 중국은 물론, 수만km 떨어져 원한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있을 수 없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무차별 도륙했다. 유일한 동기라면 지칠 줄 모르는 정복욕이다. 때문에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특히 상대국이 저항하면 성을 함락한 뒤 남녀노소 모두 죽였다. 전쟁 역사상 유례가 드문 야만성과 잔혹함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도 고려 때 몽골로부터 6차례나 침략당했다. 강화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때다. 몽골군이 고려에 첫 침입한 이듬해인 1232년 개경에서 강화로 수도가 옮겨진 이래 강화는 38년간 고려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살육과 노략질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럼에도 칭기즈칸에 대한 찬양은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소설 칭기즈칸' 등 그의 일대기를 미화한 책이 여러 권 발간됐다. 광고에도 등장했다. 한 기업체의 TV광고에서 칭기즈칸이 말에서 포효하다가 갑자기 양치기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칭기즈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이름없는 양치기에 그쳤을 것"이라는 멘트가 나왔다. 기업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 칭기즈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의 영웅성을 멜로디로 찬미한 대중가요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팝송 '칭기즈칸'이다. 몽골 국민들이 칭기즈칸을 섬기는 태도는 당연히 극진하다. 거의 신격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이 40m에 이르는 동상(세계 최대 기마상)을 비롯해 관광상품 상당수가 칭기즈칸과 관련돼 있다. 그들이야 칭기즈칸이 자기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칭기즈칸을 추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칭기즈칸과 나폴레옹에게 영웅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기까지 수많은 민초들이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어갔다. 하지만 칭기즈칸과 나폴레옹은 절세의 영웅으로 남아 아직까지 영화와 책 등에서 살아 있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본받아야 할 표상처럼 여겨진다. 칭기즈칸이 양치기에 불과했다면 이 기막힌 '모순'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명창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고액 기부



고향사랑 고액기부

리랑 축제를 추진하는 등 민속악의 발전과 강화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양사면 인화리가 고향인 유지숙 명창은 “내 고향 강화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강화의 모든 이웃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지숙 명창은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양사면 마을 축제를 위해 재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와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9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명창이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승 교육사 유지숙 명창은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강화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총괄하고, 강화북부문화센터에서 한반도 아

강화군 새마을회, 매콤~ 달콤~ 고추장으로 사랑 나눠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30일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임순)회장의 주도로 읍·면 남녀 새마을회장과 임원들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통재래방식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으며, 당일 만들어진 고추장은 읍·면의 독거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80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매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여름김치 나누기, 보금자리사업, 연탄나누기 행사 등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인술 강화군새마을회장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담아 고추장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화군 새마을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늘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고 지역사회 봉사에 열정을 다하는 새마을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매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여름김치 나누기, 보금자리사업, 연탄나누기 행사 등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김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바르게살기 김장나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가 27일 강화섬김치에서 회원 및 다문화 주부 5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다문화 주부를 초청하여 다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

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고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직접 담근 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200가구에 전달했으며, 회원들의 사랑과 정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임인관 회장은 "매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을 하고 있다"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는 매년 김장철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해마다 김장 봉사에 나서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강화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산가정 축하 선물 전달 불은면 "반갑다 아기가! 불은면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불은면 출산가정 선물 전달

강화군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용수 면장, 민간위원장 유섭섭)가 지난 24일 저소득 출산가정에 축하 선물(아기용품

4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는 농촌지역의 출산율 증가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불은면 거주자 중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분유, 기저귀 등의 아기용품을 지원했다.

사업 시행 후 두 번째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2가구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면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섭섭 민간위원장은 "아기의 출생으로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아기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어 행복하고 새 가정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용수 면장 역시 "지역 내 출산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활 참여자와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농작물 기부 강화지역자활센터, 나눔으로 더욱 풍요롭게



강화지역자활센터, 나눔으로 더욱 풍요롭게

강화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대표 윤준섭)은 지난 16일, 자활 참여자와 지역 주민들이 수확한 고구마 10kg 15박스, 고추 10kg 2박스를 강화푸드마켓(대표 주성식)에 기부하였다.

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농사업단은 도농복합 도시인 강화군의 지역 특색에 맞춰 고구마·감자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화지역자활센터 윤준섭 센터장과 강화푸드마켓 주성식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웠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강화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푸드뱅크(☎032-932-1378) 또는 푸드마켓(☎032-934-0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최백하 기자

전 군민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강화군, 독감으로부터 군민 건강 지킨다!



독감 접종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과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전 군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14세 ~ 64세 군민은 유료로 접종을 해야 한다.

독감은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는 만성질환자에게 발병할 경우,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심근경색 등 이차적으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특히, 폐렴 발생 위험이 최대 100배나 높아진다. 이에 독감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강화군은 2021년부터 자체 재원을 마련해 14세 ~ 64세 군민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전 군민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22-2023절기에는 전체 군민 69,940명 중 52.4%인 36,756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지난달 9월 20일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3-2024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고 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기관(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20개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별 접종 일정은 ▲9월 20일부터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8세 이하 중 처음 접종) ▲10월 5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13세 이하)와 임산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6일부터 70~74세 어르신 ▲10월 19일부터 65세~69세 어르신 ▲10월 11일부터 14세~64세 순으로 접종 중에 있다.

독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로 독감백신은 유행 2주 전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백신 효과 지속기간이 평균 6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 받는 것을 권장한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는 연중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감염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전 군민의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마음을 담은 메시지 전달과 아침인사 나뉘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반기 아웃리치 운영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소년안전망사업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강화경찰서와 함께 원도심에서 멀리 위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게릴라 아웃리치 및 아침인사 이벤트 등 곳곳 아웃리치 등을 진행했다.

청소년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마음톡톡' 부스와 하고 싶은 아침 인사를 선택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점심시간이나 등교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참

여도가 높고 반응도 좋았다.”며, “학기 초에 한 번 더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청소년안전망사업 등 강화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032-932-1388로 하면 된다. ▣

- 최백하 기자



아웃리치 활동



아웃리치 활동



철종의 눈물을 씻다

강화도령 이원범의 삶과 그의 시대사

이경수 지음

• 주최: 강화역사문화연구소 • 후원: 강화교육지원청, 디자인센터산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